



축사 신·증축억제 완화

농림수산부는 닭과 돼지의 지나친 증식을 억제하여 과잉생산을 예방함으로써 축산물 수급안정과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계사와 돈사의 신·증축을 억제하며, 양돈업 등록·허가업체의 모돈증식을 억제해 왔으나 이를 완화키로 했다.

양돈등록업체는 모돈을 현재 사육두수보다 증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모돈 50두 이상을 사육하고자 할 때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돈사육두수를 증식코자 할 경우 변경등록시는 체중이 130kg 이상인 두수에 한하여 등록변경을 인정한다. 양돈허가업체는 86년 11월 사육두수 이상을 증식할 수 없다. 단 종돈의 자가검정용 시설에 한하여 신증축을 허용하며 모돈 및 종돈의 사육두수 증식은 할 수 없다.

미국 농축산물 개방압력

미국이 또다시 조란과 난황, 쇠고기, 가공치즈 등 121개 농축산물을 '89년부터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장·냉동지육상태의 쇠고기와 조제분유, 식육설육 등의 수입제한을 해제하고 수정란, 배합사료

등의 특별법 제한을 해제하도록 주장하며 조란 및 난황 등을 감시품목에서 해제할 것을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측은 미국의 요구품목에 대해 오는 91년까지 3개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채택하려고 있다.

비료·농약 부가가치세 폐지

—배합사료는 철회—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농업용 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비료와 농약, 연근해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어구, 어망 등)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폐지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배합사료, 각종 농업용 플라스틱 골재 및 철골재, 농·수·축협 연쇄점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철폐키로한 당초 야당안을 철회했다. 이에 양축가들은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9년 축산관련학과 모집 1,850명

—4개 학과 22명 늘어—

'89학년도 전국대학 축산관련학과 모집 정원은 20개 대학 45개 학과로 1,850명을 모집한다.

학과별로 보면 축산과가 전년 730명보다 200명 줄어든 750명, 수의과가 9명 증원된 430명, 낙농과가 80명 증원된 360명, 사료과가 70명 증원된 110명, 축산경영과와 축산가공과는 120명과 8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내년예산 105억원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11월 11일 '89년도 예산총회에서 내년도 사업규모를 105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실적증 단기순이익이 3천7백25만원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10%씩 배당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

수의공중보건학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11월 19일 제22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의 수의학자들의 특강이 있는 후 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88년도 결산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강화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개정령에 의하면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농지매매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이동농지위원회의 확인만 거쳤으나 앞으로는 이·동장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민단체의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한편 농민이 아닌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매매할 수 있다.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심포지움 개최

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성재기)는 지난 11월 5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당에서 추계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서울대학교 하중규 교수의 「분만전후 젖소의 사양관리」, 권오경 교수의 「젖소에 있어서 분만전후의 대사상태」, 충남대학교 김덕환 교수의 「유우의 분만중후군의 치료」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제2회 육가공세미나 개최

한국육가공협회(회장 강진우)는 지난 11월 15일(화)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의 국내 축산전망과 현안으로 대두된 우유의 등급제와 일본의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현황과 육가공품 수입실태 및 문제점을 파헤쳐 육가공업계

의 나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축육개발협회의 송찬원 회장과 건국대학교 김언현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축산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결과 발표회

축산시험장에서는 지난 28,29일 양일간 '88년 축산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발표회를 시험장 대강당에서 가졌다.

발표회는 축산시험장 연구원들의 축산기술향상을 위해 한해동안 연구노력한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이규호 박사의 「산란계 육성기 및 산란기별 영양소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이상진 박사의 「육계의 아미노산 요구량 및 아미노산 공급수준별 최저사료단백질수준 구명시험」 등 한우, 낙농, 초지, 양돈, 사료이용 등의 축산 각분야별 연구발표가 있었다.

현대양계 창간 20주년 기념회

—12월 5일, 전경련회관에서—

현대축산출판주식회사(대표 김중곤)은 오는 12월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현대양계」지의 창간 20주년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축산경영학회 학술발표회

—12월 10일 건국대에서—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배대식)은 '88년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오는 12월 10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일본 시미즈 다카후사 교수를 초청하여 축산경영 정보처리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며 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 월례회가 지난 11월 15일(화) 오후 2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농민대회 참석 및 상인연합회 담합 행위 근절대책 경과보고에 이어 한국계란유통(주)의 올바른 경쟁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거래선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약간은 생산자를 불리하게 하는 일면도 있었으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만큼 앞으로는 상인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생산자도 적극 협조하여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제 6 회 전국양돈인대회

—정책 및 제도개선 촉구결의—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주최로 정책 및 제도개선촉구를 위한 제 6 회 전국양돈인대회가 지난 11월 1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1천여명의 양돈인과 관련업계,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양돈인들은 점증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최근 돈가하락 등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양돈산업 발전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축산정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결의내용은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결사반대하며 생존권 보호를 위해 돈육수출 확대와 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반대책을 강구한 후 개방할 것 ○재벌의 축산업 참여를 규제하고 양돈업허가 상한선을 설정하여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규제할 것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원자재의 관세, 부가세 면제 ○축산물안정법 등 가격안정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수입쇠고기 판매부진

수입쇠고기의 판매가 부진하다. 소비자의 과거 수입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지육위주의 유통체제에 부분육이 정착치 못하고, 수입쇠고기가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정육점

에서는 이윤이 큰 부산물이 없는 수입육의 판매를 꺼리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 수입쇠고기 도착 및 판매현황

(단위 t, 11월 14일 현재)

구분	도입계획	계약물량	도착물량	판매량	
일수급반용	고급육	6,050	6,008	3,937	1,437
	일반육	7,350	7,345	2,114	792
관광호텔용	1,100	493	470	470	
계	14,500	13,846	6,521	2,699	

수입개방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지난 11월 17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여의도광장에서 가졌다.

전체 농민단체가 모인 이날 집회는 전농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유사이래 처음이었고 농민의 문제를 한데 모아 응집시킬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농축산업의 재벌참여 금지 등 현안문제에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여의도 집회를 끝내고 농민 1만여명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하며 농민의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였다.

천안양계협동조합 현판식

천안양계협동조합(조합장 김경렬)이 지난 12월 5일(월) 오후 2시 천안시 조합사무실에서 관련업계 인사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갖는다.

동조합은 천안시, 천원군, 온양시, 아산군, 연기군 일원에 있는 양계인들의 소망인 양계협동조합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정식인가를 얻어 이날 현판식을 성대히 갖게된 것이다.

• 주소 : ☎ 330-050

천안시 영성동 62-10(청과시장 옆)

• 전화 : (0417)62-3944